

THE ChildU JOURNAL

www.childu.co.kr

대구에는 이렇게 대기자가 70명 이상인 학원도 있네요!



- ① ChildU 학원에 대기자가 70명 이상인 상태가 1년이상 지속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2가지 또는 3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 A 평소에 세어보는 걸 잘 하지 않는데 오늘 인터뷰를 계기로 세어보니 대기명단에 86명이 있네요. 저희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까지 수업을 하고 있는데 6세부터 보통 대기를 걸고 계셔서 유치부 대기를 감안하면 평균적으로 약 70명의 대기인원이 상시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느 곳에 가나 물어보신 질문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비결은 바로이것입니다!"라고 말씀 드릴만한 것이 딱히 떠오르지 않아요. 다만 주위 원장님들께 이것저것 하고 있는 걸 말씀드리면 도움이 되신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소소히 말씀드리도록할께요.

첫 번째는 Before & After Service의 마음으로 모든 일은 꼼꼼하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매주 진행되는 회의를 통해서도 모든 선생님들께 항상 제일 중요하게 부탁드리는 부분이에요. "유준이가 선생님 아들이고 영어학원을 처음다녀온 날이에요.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유준이 어머님이

아이가 어떤 말을 하는 걸 듣고 싶어하실까요?"에서 시작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엄마, 거기 되게 재밌었어!"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하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 유준이와는 어떻게 수업 해야 하고, 수업 후에는 어떤 상담을 해야 하는지 머릿속에 그려지실 거예요. 이렇듯 학원은 아이가 오는 곳이고, 부모님은 학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아실 수가 없으니 아이가 등원 전 준비할 일, 학원에서 와서부터 갈 때까지 하는 것들, 하원 후에 해야 할 일들을 꼼꼼히 다 챙겨 전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학원오기 전 넘어져서 무릎이 까져서 등원하면 약바르고 밴드까지 붙여서 어머님께 사진을 전송해 드리고 '아팠지만 울지 않고 씩씩하게 학원 잘 와주었으니 칭찬하며수업 잘하고 가겠습니다.'까지 완료한 후에야 수업에들어가요. 정말 작은 일이지만 학습만큼 아이에게 신경쓰려고 노력하는 작은 디테일들에 부모님들께서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한 그룹이 최대 8명을 넘지 않기 때문에 한 반의 8명의 일상과 수업과정이 담임선생님 책임하에 꼼꼼하게진행되고 있는 거죠.

또한 영어학원에서 영어학습을 한다는 것은 모든 학원이 당연히 하고 있는 것들이지만 두 달 마다 그 동안 수업에서 진행한 자료와 사진들과 함께 영어발표 영상을 제공하고 있어요. 비싼 교육비를 주시고 맡겨주셨는데 아이가 학원에서 무엇을 배웠고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시켜드리는 것이 가르치는 이들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블로그를 통해 교육과정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블로그의 기록들은 재원생을 위한 after service 가 목적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블로그를 보시고 신규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현재는 대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대면 상담하지 않고 블로그만 살펴보신 후 바로 대기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선생님들께서도 단순히 '수업을 하는 것'에서 나아가 '수업을 기록하는 것'에서 서로의 교수법을 공유하고 또 피드백 받으며 성장하는 경우가 많아 블로그는 앞으로도 유지할 계획이에요.



두번째는 ChildU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주는 힘이 있어요. 이전에 여러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았지만 커리큘럼의 한계로 선생님과 아이들의 역량을 한껏 펼칠 수 없어 아쉬웠어요. '내 자식이 배웠으면 좋을만한 프로그램'으로 찾아서 시작한 ChildU는 미국현지 교과과정을 그대로 배우기 때문에 실제 미국에 있는 학생들과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심화학습으로 갈수록 아이들의 실력이 탄탄해 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학습의 결과를 영어발표(presentation)로 확인 함에 따라 아이들에게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길러주는 모습에서 ChildU의 힘을 느낍니다. 쓰기와 문법을 강조하는 영어교육에 비해 지식을 기반한 '말할 수 있는 아이'는 세계가 본인의 무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학부모님들께서 마냥 재미있기만 해서 영어학원을 선택하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커리큘럼을 탄탄하게 가지고 있고 기본에서 심화까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 요소였던 것 같아요.

이처럼 저희 원의 모든 것은 톱니바퀴 물려 돌아가 듯 진행되는 매일의 일상이라 특별한 건 없지만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아이가 등원해서부터 하원할 때 까지 꼼꼼하게'관찰하고 Before & After Service를 제공하는 원이기에 많은 아이들이 몇 년씩 기다려주면서까지 와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① ChildU를 다니면 가장 향상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저희 ChildU 프로그램은 말하기 중심의 '발표전문 표현영어'를 지향함에 따라 아이들이 영어로 말하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향상되는 부분입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있어 ChildU 영어를 함에 가장 큰 반응은 '영어가 즐겁다'입니다. 다른학원에 다니다가 온 친구들도 "엄마! 영어가 피아노, 미술보다재미있어"라고 한다더라구요. 플래쉬 애니메이션으로이루어진 쌍방향 온라인 미국학습관도 물론 재미있겠지만,아이들은 본인이 스스로 영어로 '표현'해보는 과정에서즐거움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세이펜으로 찍고따라하거나, 원어민이 있더라도 듣고 끝나버리는 학습보다는스스로 친구들과 영어로 말해보고, 발표해보는 과정에서영어에 대한 흥미가 생겨나는 것 같아요. 이러한 흥미는영어의 자신감으로 이어져 학교에서도 씩씩하게 발표하고, 더나아가 영어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될 무기가 되어줄 거라민습니다.



'발표의 꿈이 생기면 아이의 꿈이 달라집니다.'

라는 문구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그저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영어가 아니라 꿈을 찾아가기 위한 단단한 발판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Child 나는?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발표토론 수업에 최적화된 영어교육입니다. 언어의 4대 영역을 바탕으로 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쓰고,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원장님만의 운영 노하우와 철학은 무엇일까요?

- A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국에 수업 못하는 학원이 없고, 더구나 열정 없는 원장은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머물러 안도하기 보다는 늘 새로운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또 그에 따라 선생님들도 교육하여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의 수업'이 되도록 애쓰고 있어요. ChildU에서 지향하는 'No Child Left Behind!'라는 말처럼 시작점이 다른 영어라는 과목이지만 일단 시작했다하면 함께 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모든 아이들의 학습속도가 같을 순 없지만 방향은 같게 가고 있어야 하고, 느리게 오는 친구는 손을 잡고라도 함께 가려고 연구하는 것이 선생님들의 몫이어야 합니다. 일단 시작했으면 포기하지 않고 해결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저희 원이 가지고 있는 기본 마음가짐 입니다.
- ① 초등영어와 중등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ChildU학원에서는 어떻게 해결해주는지 궁금합니다.
- A 초등 영어에서 '영어 학원의 문턱은 낮아야 한다.' 라고 생각하고 시작합니다. 화장실만 혼자 가도 대견하기 그지없는 초등학생이 학교수업 후 영어까지 학습하려면 그 아이에게 굉장한 과업일 수 밖에 없어요. 가랑비에 젖어들듯이 낮은 문턱의 영어학원을 매일 꾸준히 다니게 되면 어느 순간 '단어'가 보이고, 단어가 모여있는 '문장'이 읽어지고, 점점 문장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글'이 이해가 되는 순간이 올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닌 하루하루의

꾸준함이 모여 실용영어가 마무리 되면 그 때 입시영어로 한고개 넘어갑니다. 그 때는 문제가 많아져도, 단어가 어려워져도 꼭꼭 씹어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아이에게 생기더라구요. 초등고학년에서 중학생으로 올라가기 전 예비중등과정에 힘을 주어, 자연스레 중등과정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해주고 있습니다. '듣고 말하기'위주의 수업에서 '읽고 쓰기' 중심과정으로 한 단계 올라가 학교 내신과 입시에서도 영어가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 ChildU 학원 원장 김미혜



ChildU

ChildU에서는 듣고, 쓰고, 읽고, 말하기의 4대영역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의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학생으로 교육합니다.